데스크 시각

‘개와 늑대의 시간’ 이 끝나면

박 성 천
문화부장·편집국 부국장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다. 전쟁과도 같은 선거가 마침내 오늘로 끝이 난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시간이었다. 누군가는 배지를 달 것이고, 누군가는 패배의 쓴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투표 날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필자의 뇌리에 생뚱맞게도 한 편의 소설이 떠오른다. 권력의 허구성을 해학과 풍자로 일갈했던 윤흥길 작가의 장편 ‘완장’ 이 그것이다. 출간 40주년을 맞아 새로운 개정판으로 발간된 소설은 세대를 이어 독자들의 폭넓은 지지와 공감을 받았다. 무엇보다 작품은 ‘완장’ 이라는 사물을 모티브로 복잡다단한 세상살이의 모습을 날카롭게 들여다본다.

곧 가려질 300개의 배지 주인공

땅 투기로 졸부가 된 최 사장은 저수지 사용권을 얻어 양어장을 만든다. 그리고 저수지 감시를 이곡리의 한량 임종술에게 맡긴다. 완장을 두른 임종술은 이전과는 딴판으로 변한다. 사람들을 안하무인으로 대하고, 읍내에 나갈 때도 완장을 두른다. “돈도 완장이고, 지체나 명예도 말짱 다 완장이여!” 완장이 지닌 힘을 실감한 임종술은 점차 세상에는 수많은 완장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작가는 인간 사회의 욕망과 우화적인 이면을 날것의 언어로 그렸다.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의 ‘감시원’ 완장은 오늘의 관점에서 ‘배지’ 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제 총선이 끝나면 300개의 배지 주인공이 가려지고 ‘선량’ (選良)들은 일반인들은 듣도 보도 못한 많은 특혜를 누릴 것이다.

돌아보면 선거는 역동적이고 우여곡절이 있기 마련인데, 이번 선거도 예외는 아니었다. 정권 심판론과 야당 견제론이 충돌한 지점에서 다수의 여론조사기관(공표금지 이전)은 심판론이 우세하다는 예측을 내놓았다. 성난 민심의 바다에 도도히 흐르는 것의 실체는 무엇이었는지 몇 시간 후면 그 결과가 드러날 것이다. 어느 편이 이기든 결과에 담긴 추상같은 민의를 받들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혹자는 선거를 일컬어 ‘민주주의 꽃’ 이라고 말한다. 그럴 만도 하다. 민주국가 시민으로서 가장 ‘갑’ 의 위치에 설 수 있는 때가 바로 선거철이다. 평소에는 아는 척도 하지 않을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이 먼저 악수를 청하고 눈맞춤을 한다. “뽑아만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다” 며 비굴할 정도로 굽신거리기도 한다. 그뿐인가. 출근길 목이 좋은 교차로마다 점거하듯 도열한 채 허리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하고, 연신 손을 흔들어댄다.

언제 또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이, 필부필부(匹夫匹婦)들이, 학력 등 스펙도 빵빵하고 재산(평균 24억4000만원)도 많은 후보자들로부터 이처럼 극진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겠는가. 입지자들은 유권자의 표가 ‘총알’ 과 같은 위력을 지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표를 구걸하는 최선의 방법 또한 납작 엎드리는 것임을 안다. 그러나 유권자들을 상전 모시듯 떠받드는 ‘모양’ 은 어디까지나 투표일까지다.

물론 선거 기간 후보자들은 분초를 아껴가며 유권자들을 많이 만났을 것이다. 지역 발전의 적임자, 민의의 대변자 등 자신이 당선되어야 할 이유를 내세우며 읍소를 했을 것이다. 한편으로 후보자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싶다. 시민들 중에는 진심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많다. 면전에서는 웃으며 환대하지만 속내는 알 수 없는 게 유권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자신을 찍어줄 것 같으면서도 정작 표는 다른 후보에게 준다면 ‘웃으면서 뺨을 맞는 것’ 이나 다름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끝나지 않은 ‘완장의 시대’

프랑스 사람들은 황혼 무렵을 ‘개와 늑대의 시간’ 이라고 말한다. 빛과 어둠이 뒤섞여 낮도 밤도 아닌 모호한 경계의 지점을 일컫는다. 언덕 너머 실루엣으로 다가오는 짐승이 내가 기르는 개인지, 나를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 분간할 수 없다면 그 두려움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비유적으로 인용되는 이 말은 특히 정치 영역에서 곧잘 은유되곤 한다.

이제 몇 시간 후면 ‘개와 늑대의 시간’ 은 끝난다.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은, 제각기 자신이 투표했던 또는 자신이 굽신거렸던 대상이 ‘개’ 였는지 ‘늑대’ 였는지 알게 될 것이다. 긴 어둠이 걷히고 새벽 미명이 밝아오면 모든 것은 실체를 드러내기 마련이니까.

다시 ‘완장’ 의 주인공 임종술의 이야기로 넘어가보자. 그는 완장의 힘에 집착한 나머지 자신을 고용한 사장 일행의 낚시질까지 막아서는 행패를 부린다. 결국 그는 관리인 자리에서 쫓겨난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저수지 주변을 맴돈다. ‘완장’ 의 마력에 붙잡힌 임종술 같은 이가 비단 소설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에도 무도한 ‘완장’ 들은 곳곳에 존재한다. 물론 소설 속 표면상 주인은 땅 투기 업자 최 사장이지만 오늘의 시대 주인은 ‘국민’ 들이다. 열린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완장의 시대’ 에 살고 있다.

社 說

선택의 날…투표 참여로 민주주의 실천하길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본 투표의 날이 밝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당들은 300개의 의석을 놓고 표심 잡기에 전력을 다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차를 맞아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 심판’ 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정권 심판’ 을 내세우는 등 여야가 모두 ‘심판론’ 으로 유권자 마음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결과는 선택의 날인 오늘 유권자들의 한표 한표가 모여 결정된다. 지난 5~6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는 전국 평균 31.28%로 역대 총선 사상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특히 호남은 전남(41.19%)을 최고로 전북(38.46%)과 광주(38.00%)가 전국 1~3위를 휩쓸 정도로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광주·전남은 이번에도 지역구 18석을 모두 민주당이 싹쓸이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다 보니 민주당도 텃밭인 호남보다 수도권과 낙동강벨트 등 격전지 중심으로 유세를 했고 공천을 받은 민주당 일부 후보들은 지역에서 불성실한 유세 태도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그런데도 호남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전국적인 판세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치려는 적극 투표층의 참여 때문이다.

오늘 본 선거는 아무래도 중도층과 막판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참여가 많을 것이다. 투표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이유는 한표 한표의 권리행사를 통해 뜻하는 바를 이루기 때문이다. 최선의 후보를 선택해야겠지만 마땅치 않다면 차선, 차선도 보이지 않는다면 차악의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권리를 포기하면 최악의 후보가 당선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총선 결과는 향후 4년의 국내 정치는 물론 지역 정치와 주민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결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투표소에 가진 않는 것은 유권자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임을 명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자.

‘대파논란’ 불똥 튄 전남 재배농가 피해 없어야

전남은 전국 대파 생산량의 40.4%(13만1100t)를 차지하는 주산지이다. 최근 ‘대파 논란’ 불똥이 전남 재배농가들에게 튀었다. 정부의 대규모 예산 투입에 대파 가격이 폭락한데다 일부 중간 유통상인들이 대파 매입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재배농가들은 출하하지 못한 겨울대파 물량을 폐기하거나 아예 대파 밭을 갈아엎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대파 가격 안정을 위해 2월부터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으로 1500억여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고 4월 한 달 동안 중국산 대파 3000t을 무관세로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대파 가격의 큰 폭 하락을 가져왔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농넷’ 에 따르면 전국 32개 공영 도매시장의 평균 대파 경락가는 한 달 전 kg당 2570원에서 그제 1690원으로 900원 가량 하락했다. 농가 입장에서는 생산비와 농협 출하비를 감안해 최소 kg당 1825원을 받아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고 한다. 대파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중간 상인들은 대파 매입을 중단하고 생산농가들 또한 출하 판로가 막혀버렸다.

농가들은 지난달 7일 대통령이 ‘대파 가격이 875원이면 합리적’ 이라 말한 이후 ‘대파 논란’ 이 일어났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대파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오히려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주산지 농협의 불만도 높다. 지역농협에 유통·출하 명령을 내려 가격을 안정시키지도 않고 지역농협에 대파 물량이 쌓여있는데도 이를 시장에 풀지 않고 1500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고 지적한다.

전남지역 등 대파 재배농가가 ‘대파 논란’ 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농가들이 겨울대파 밭을 갈아엎는 일이 없도록 무차별적인 가격안정자금 살포를 중단하고 수입 물량 조절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은펜칼럼

정치권의 ‘악화가 양화 구축하기’

최 영 태
전남대 명예교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레샴의 법칙으로 알려진 이 말은 시장에 좋은 품질의 화폐와 나쁜 품질의 화폐가 동시에 존재할 때 좋은 화폐는 사라지고 품질이 떨어지는 화폐만 남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레샴의 법칙은 요즘 정치권에 잘 들어맞는 말 같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겠다. 먼저, 민주당의 이탄희, 오영환, 홍성국 의원 등 국민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진 초선 의원 몇몇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들은 모두 4년 전 총선 때 민주당의 영입 인사들이었다. 이들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유가 전부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정치권의 반개혁적 정치형태나 극단적인 증오와 반목의 정치에 실망하여 불출마를 결심했다.

많은 언론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가리켜 역대 최악의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역대 보수 진영 대통령 후보 중에서 가장 준비가 안 된 후보로 정평이 났다. 게다가 윤 후보 주변에는 부인 김건희 씨 등을 비롯하여 구설수에 오른 사람이 많았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다. 형수 욕설 파문, 대장동 사건 등 고개를 갸웃거리게 할만한 부정적 요소가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자나 민주당 지지자 상당수는 찍긴 찍지만, 기분이 유쾌하지 못하다고 말하면서 투표했다.

한 달 전 세상을 떠난 이홍길 전남대 명예교수는 술자리에서 가끔 이런 풍자 노래를 부르셨다. “총장이 쪼다니까 교수도 쪼다, 교수가 쪼다니까 학생도 쪼다?” 실제로 윤석열과 이재명 두 사람이 주도한 지난 2년의 한국 정치사는 예상대로 최악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우선 떠오르는 것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라는 말이다. 그의 정치는 한마디로 좌충우돌이었다. 게다가 그는 유승민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처럼 직언이나 쓴소리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다. 굴러온 돌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내의 합리적 보수주의자들을 철저히 무력화시켰다. 윤석열 정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라는 말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이재명 대표가 주도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은 많은 사람을 실망하게 했다. 선거기간 큰 구설수에 오른 김준혁, 양문석 후보는 민주당이 비명계라고 지칭된 박광온, 전해철 대신 공천한 사람들이다. 박용진을 대신하여 공천하려 했던 정봉주와 조수진은 각각 막말과 성폭력범 전문 변호 경력으로 도중 하차했다. 민주당의 몇몇 공천 사례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라는 말을 실감 나게 했다.

민주주의 사회는 국민이 주인인 사회이다. 선거는 바로 국민이 주인 노릇을 할 최고의 기회이다. 그러나 호남 지역 선거는 대부분 민주당이 점찍어준 사람을 선거날 인준해주는 행위에 머물렀다. 가장 큰 이유로는 민주당 외에 선택의 폭이 협소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럼 민주당이라도 호남 정치의 이런 특수 상황을 고려한 공천을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민주당의 공천은 형식상으로는 권리당원 여론조사 50%, 일반 여론조사 50%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경선은 사실상 권리당원에 의해 주도되었다.

심지어 민주당 지도부의 ‘엿장수 맘대로’ 공천의 성격을 지닌 곳도 있었다. 일반 여론조사 1~2위가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아예 배제되는 경우도 있었다. 일반 유권자로서는 이런 것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는 논리는 유권자 자신의 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우리 지역 민주 진영의 제3당 후보 중에는 도덕성과 민주화 경력 등 삶의 흔적에서 혹은 지역과 국가에 대한 기여도 등에서 민주당 후보보다 장점이 많은 사람도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견제하는 역할에서도 민주당 인사들에 결코 뒤지지 않을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우리 지역 유권자들은 오로지 민주당 소속 만을 고집하면서 민주당 밖의 유능한 인재들을 사장해버린다. 이것 역시 큰 틀에서 보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 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유권자의 선택 기준이 바뀌어야 정치인의 수준이 달라진다. 대통령이나 정당 대표의 수준도 유권자가 하기 나름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정치권의 ‘악화가 양화 구축하기’ 를 근절할 주체는 유권자 자신이다.

無 等 鼓

메기 효과

노르웨이와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어부들은 바다에서 잡은 정어리 수족관에 천적인 메기를 넣는다. 정어리들이 메기를 피해 꾸준히 움직이기 때문에 장거리 운송에도 죽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어리들은 항구에 도착하면 대부분 죽지만 살아남은 정어리들은 식감이 좋은 탓에 높은 가격에 팔린다고 한다. 노르웨이의 어느 어부가 정어리 수족관에 메기를 집어넣은 데서 유래된 ‘메기 효과’ 는 막강한 경쟁자의 존재가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말한다.

이번 4·10 총선에서도 이런 메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비례정당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범야권에서 메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서다. 조국혁신당의 ‘돌풍’ 배경에는 무엇보다 선명한 ‘정권 심판론’ 이 원동력이 됐고, 이는 범야권의 지지층 결집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은 애초 조국혁신당에 대한 기대를 별로 하지 않았다. 신당 창당 당시에만 해도 야권인 민주당마저 이른바 ‘조국의 강’ 에 또다시 빠질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조국의 강’ 은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 을 무기 삼아 범야권의 메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극한 대립만 이어가는 여야에 대한 실망,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다는 중도층 유권자들을 이끌어낸 것이다.

또한 민주당이 180석 넘는 의석 수로도 그동안 정국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 잡음을 일으킨 데 실망해 등을 돌렸던 지지층도 다시 투표장으로 향하게 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민주당 일색인 호남에서도 이런 메기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하다. ‘민주당이 깃발만 꽂으면 된다’ 는 공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에서의 ‘공천은 곧 당선’ 이라는 점 때문에 공천됐다고 법정 선거토론회를 불참한 후보가 있는가 하면,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당 대표가 광주·전남 지원 유세를 위해 단 한번도 내려오지 않는 것을 두고 어찌보면 호남 유권자를 ‘잡아 놓은 물고기’ 취급했다는 분노섞인 여론이 나오고 있다.

/최권일 정치총괄본부장 cki@

기 고

전남대 홍매(紅梅)가 고향 담양 품에 안긴 사연

고 민 석
의열공종중 행사추진위원장
한국경영평가연구원 이사장

봄이 찾아 오면 많은 사람들이 꽃을 보러 나선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매화를 보기 위해 일부러 산사를 찾는 경우도 많다. 구례 화엄사 화엄매, 백양사 고불매, 선암사 선암매 등이 대표적이다. 전남대 홍매(紅梅)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매화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며칠 전 전남대 홍매와 관련한 의미있는 행사가 열렸다. 지난 6일 전남대와 장흥 고씨 의열공 종중이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에서 개최한 전남대 홍매 나눔 식목 행사가 그것이다.

전남대 홍매는 조선시대 고경명 의병장의 손자이자, 고인후 의병장의 아들인 월봉(月峯) 고부천 선생이 1621년(조선 광해군 13년) 명나라 특사로 갔을 때, 희종 황제에게 받은 홍매 한 그루를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에 심은 ‘대명매(大明梅)’ 에서 유래한다.

이후 고부천 선생의 후손인 전남대학교 고재천 교수가 이 나무로부터 1918년에 분주(分株)해 키우던 것을 1952년 전남대학교 농과대학에 기증·식재했고 1972년 현재의 자리인 대강당(현 민주마루)에 옮겨 심었다.

항일 학생 비밀결사 건아단(健兒團)을 조직하며 항일운동에 뛰어들었던 고재천 교수는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제3대 학장을 역임했으며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기도 했다.

이 나무는 ‘전남대 홍매’ 라 불리며 전남대인은 물론 광주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한 김병인 전남대 교학부총장의 말처럼 전남대 홍매는 1980년 5·18 민중항쟁 당시 전남대생들의 의로운 투쟁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또 매년 3월이면 꽃망울을 터트려 이제 막 새로운 출발선에 선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에게 봄 기운을 전해주었다. 광주시민들 역시 전남대 홍매를 보며 새로운 한 해를 기약한다.

이번 식목행사는 72년만에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증했던 나무의 후계목이 다시 고향 유천리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지방화시대를 맞아 전남대학교가 독립운동가 고재천 교수의 면학·애교정신을 기리고 장흥 고씨 의열공 종중에 전남대 후계목을 기증함으로써 보은을 실천했다는 점도 우리 문중은 고맙게 생각한다.

종중은 고부천 선생 유장비터에 홍매를 식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고재천 교수 사위인 안재홍 전 국회의원이 가족대표로 전남대학교와 장흥 고씨 의열공 종중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병인 부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 100년 아니면 200년이 지난 다음 유천리의 후계목이 전남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호남 지역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전남대 홍매가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어 조국과 민족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이끌고 우리 개개인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감소 해결이 국가 현안 과제가 되면서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대 홍매의 귀향(歸鄕)은 지방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매년 3월이면 담양 유천리에서 활짝 핀 홍매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홍매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이야기하고 행복한 마음을 간직했으면 한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정 치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FAX 222-8005〉		〈FAX 222-0195〉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사 회 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F AX 222-0195〉		〈F AX 222-0195〉
전 남 본 부	220-068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